

새것과 옛것이 벌이는 '인정투쟁'의 역사

17세기 프랑스의 '신구논쟁'이 '인정투쟁'의 전형...

논쟁은 지성과 학문의 존립 근거

김성기 | 《현대사상》 주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문이란 논쟁의 역사였다. 그런데 논쟁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 가지 도드라진 양태를 감지할 수 있다.

시비의 정당화 근거가 어제보다는 오늘, 낡음보다는 새로움에서 비롯한다는 점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논쟁은 구체의 시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탓에 옛 시공간에 맞서 새로운 시공간이 쟁투하는 구도기 때문이다.

“논쟁: 옳고 그름을 가리는 행위.” 사전상의 뜻풀이다. 논쟁은 무엇의 옳고 그름, 즉 시비를 가리는 일이다. 왜 시비하며 논쟁하는가. 언제나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궁극에는 진실을 포착하고자 한다. 이런 과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의 존립근거로 삼는 분야가 지성과 학문의 세계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문이란 논쟁의 역사였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지성사는 말과 글로 수놓은 그 찬란한 깃발을 펴놓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논쟁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 가지 도드라진 양태를 감지할 수 있다. 시비의 정당화 근거가 어제보다는 오늘, 낡음보다는 새로움에서 비롯한다는 점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논쟁은 구체의 시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탓에 옛 시공간에 맞서 새로운 시공간이 쟁투하는 구도기 때문이다. 먼저 이를 예증하는 최근 사례를 살펴보고, 그로부터 논의의 실마리를 풀어가도록 하자.

모더니티 논의의 효시, '신구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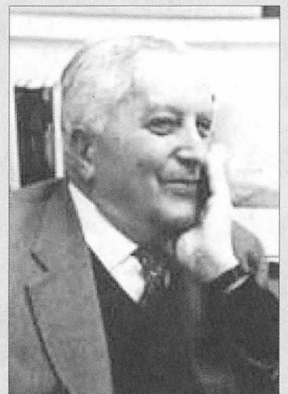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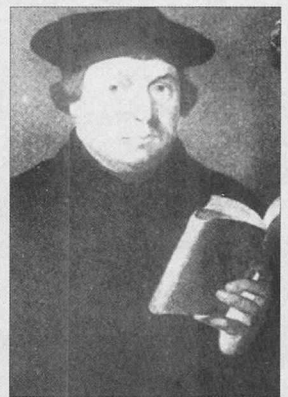
얼마 전 문학평론가 권성우는 <4·19세대 비평의 성과와 한계>(《문학과 사회》 통권 50호)에서 '기성 세대 비판을 통한 인정투쟁의 논리'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글의 논지는 이렇다. 4·19세대 비평가들은 이전 세대 문인이나 비평가들에 대한 비판 및 자신을 세대와의 대조를 통해서 문학적 독자성과 차별성을 논리화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비평적 전략은 기존의 문학적 관행에 대한 비판과 전복을 통해 새로운 문학적 입장과 입지를 다졌다는 주

장이다.

여기서 내게 관심 있는 대목은 4·19세대 비평가에 대한 권성우의 평가가 맞느냐 여부가 아니다. 그보다는 이른바 세대론의 관점에서 비평사를 접근했다는 사실인데, 이를 좀더 크게 보면 지성사를 가로지르는 논쟁의 한 모습, 그러니까 새것과 옛것 사이의 인정투쟁 과정을 슬며시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의 메커니즘, 특히 그 심리학은 따로 논의될 가치가 있으리라. 일단 예측 가능한 것은 인정투쟁의 과정에서 새것의 자리는 늘 바뀌며 그 투쟁 양상 또한 시대에 따라 새롭게 변주된다는 점이다.

그런 뜻에서 논쟁의 사회사는 '낡은 것의 비판을 통한 인정투쟁의 논리'에 기반한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이 승인될 경우 그런 논쟁의 원형으로 꼽을 만한 사례가 있다. 17세기 말 프랑스의 '신구논쟁'이 그것이다. 흔히 '고대인과 현대인의 싸움'이라 불리는 이 논쟁이 각별한 이유는 그것이 현대 지성계 전반에 널리 회자하는 모더니티 논의의 효시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구논쟁의 지성사적 문맥을 돌아보는 일은 '모더니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와도 상통하는 바 많다고 하겠다.

모더니티의 의미소인 '모던'은 원래 중세 라틴어 '모데르누스'에서 유래했다. 이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5,6세기 당대를 고대 로마 시대와 변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 이 말은 과거에 살았던 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화된 동시대인들을 과거의 이교도들과 구별짓기 위해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기독교



'인정투쟁'의 과정으로서 세계논쟁사를 빛낸 전형적 사례가 신구논쟁이다. 사진은 신구논쟁의 중심에서 활약했던 지식인들. 위부터 데카르트·베이컨·프리고진.

와 모더니티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고대인에 대한 근대인의 우월성은 사뭇 종교적인 색채를 띠었다.

전통의 권위 해체와 이성의 해방 이끌어

신구논쟁의 실마리는 12세기에 이르러서 나타났다. '고대인과 현대인의 싸움'으로 알려진 현상이 처음으로 대두된 것이다. 이 당시 그 유명한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난쟁이'라는 격언이 생겨났다. 키는 작지만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난쟁이는 키가 큰 거인보다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현대인들 또한 고대인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이 비유는 그 후 숭한 유럽 지식인들의 머리 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된다.

그로부터 5세기가 지난 17세기 말 프랑스에서 신구논쟁이 본격적으로 부각된다. 이 논쟁은 1687년 프랑스의 시인 샤를르 페로가 절대적인 전범으로 유효했던 고대의 예술에 대해 자기 시대 예술의 우월성을 선언하면서 일어났다. 그는 만약 고대 그리스 시대의 시인 호메로스가 17세기에 태어났다면 《오디세이아》 같은 작품을 더 훌륭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니콜라스 부왈로는 오히려 고대인들이 현대인들보다 지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맞섰다. 당시 논쟁은 각 시대의 예술은 나름대로의 취향과 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척도로 잴 수 없다는 합의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신구논쟁은 지식의 문제와 궁극적으로는 취향 문제에 대한 전통의 권위가 무너졌음을 응변했다. 그것은 미학적 측면에서 중세 스콜라주의의 폭정뿐 아니라 고전적 고대에 대한 르네상스의 이상화라는 질곡에서도 이성을 해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는 16, 17세기의 철학 및 과학 논쟁이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 예로, 몽테뉴의 《수상록》(1580)과 프랜시스 베이컨의 《배움의 향상》(1605)과 《신오르가논》(1620), 그리고 데카르트의 《방법서설》(1634)은 모더니티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에 속한다. 이들은 당대를 지배했던 사상의 불모성과 과학적 방법의 결여에 대한 책임이 맹목적인 고대 숭배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구논쟁은 근대 예술과 문학의 맥락에서 점점 더 뚜렷해지는 역사적 상대주의의 추세를 뒷받침한다. 이 상대주의는 본래 전통 비판의 한 형식이다. 모더니티의 관점에서 예술가는 확고부동한 기준을 가진 규범적인 과거와 단절돼 있으며, 또 전통은 그에게 본받을 만한 선례나 따를 만한 지침을 제공해줄 아무런 합법적 권리도 갖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 예술가에게는 현재가 과거를 모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거가 현재를 모방한다고 할 수 있다. 초월적인 미의 이상에 기반한 유서 깊은 '영원성의 미학'에서 변화와 새로움을 중심적 가치로 삼는 '현재성의 미학'으로 일종의 문화적 이행이 일어났다는 말이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쟁점은 20세기 과학과 과학철학에서 보이는 상대주의의 흐름이다. 결정론의 위기나 자연 과정에서의 우연과 무질서의 위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의 문제, 단순한 '검증 가능성' 보다는 '반증 가능성'을 내세우는 칼 포퍼의 과학적 이론관, 그리고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및 '과학혁명' 같은 인식론적인 개념들이 그것이다. 이런 추이에 대한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심은 과학과 그 추론 과정의 정당성을 바라보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실제의 느낌에서 비롯한다.

미학적, 인식론적 상대주의의 흐름 열어

《혼돈으로부터의 질서》의 프리고진과 스텐저가 보기에 근대과학은 두 가지 개념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 먼저 불가역적인 시간(이른바 '시간의 화살')에 반대하는 편견은 주로 물질의 영원한 법칙을 발견하려는 근대 과학의 열정에서 기인한다. 비슷한 이유로 우연은 마치 인간이 자연법칙을 완전히 지배하려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인 양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우연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무지의 결과일 따름이다. 아이슈타인의 표현대로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리고진과 스텐저는 '새로운 과학'이 많은 과학자들이 불가역성과 우연에 대해 견지했던 주로 부정적인 견해를 극복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물론 우주의 결정론적인 기계적 모델, 그리고 우연에 대한 부정적인 접근방식은 근대의 과학적인 '세계의 각성'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을 역전시켜야 할 때가 됐으며, 새로운 과학은 불가역성과 우연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세계를 완전히 '다시 마법에 걸리게 할 것'을 약속한다.

결론적으로 '신구논쟁' 이후 지성사는 상대주의의 길을 걷고 있다. 어느 시대나 타당한 진리, 미의 개념은 지속적인 붕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학문과 문화의 권위가 약화됨과 동시에 현재에 대한 자의식, 시간, 그리고 변화는 주도적인 가치의 원천이 되고 있다. 미학적, 인식론적 상대주의가 팽배한 것이다. 오늘의 우리 지식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인문학의 위기, 대중문화 논쟁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이 대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의 해결이나 새로운 문제의 출현이나, 다시 논쟁은 계속된다.●